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목	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220장)	다같이
기	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은이
성경봉독	신명기 24:19~22(구약 298면)		인도자
말	씀	밭 모퉁이를 남기는 사랑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찬	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58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온 들녘이 결실로 가득한 이때,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은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 쉬는 날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풍성한 결실의 일부를 주변의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떠한 나눔과 배려의 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의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쓸이 하여 다 베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소출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맡겨진 물질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여 불과하다는 신앙고백입니다. 내 뉘를 더 많이 챙기고 쌓아두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내 삶의 남은 것을 거룩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확할 때 바닷에 떨어진 이삭을 굳이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한가위가 전해주는 진정한 기쁨과 풍요는 우리 가족만의 울타리 안에서 누릴 때보다, 주변의 외롭고 힘겨운 삶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나눌 때 더욱 완성되고 깊어집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삶의 여유 중 일부분을 기꺼이 남겨두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넉넉한 신앙의 품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변을 향한 정성 어린 관심과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종 되었던 무력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소망 없고 연약했던 지난날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추석의 풍성한 속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풍성한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걸음을 가장 신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나눔과 배려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사랑을 베풀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 본문 / 신명기 24:19~22 】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220장)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넓은 들에 익은 곡식(589장)

-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 (3)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